

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권한대행 모두발언(3.11)

-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.
지금부터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국내적으로 어려운 정책 여건이 지속되고
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
 - 그럼에도 인구위기 대응은
우리 경제·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
한순간도 지체해서는 안되는 당면 현안입니다.
-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.75명으로
9년 만에 반등하였습니다.
 - 코로나로 인해 지연된 혼인·출산이 회복된 측면도 있지만,
민간·정부·지자체 등 각계의 절박한 노력이
기여했다 하겠습니다
 - 정부는 어렵게 만들어진
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
저출생 대응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.
- 우리나라는 작년 12월,
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
20%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.
 - 고령화는 연금·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고갈,
각종 불균형과 격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,
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.

- 한편, 소비 측면 등 변화된 고령층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고령층 수요제품에 첨단기술이 결합된 Age-Tech 시장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.
- 정부는 초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고용 기반구축, 노후소득 강화 등 구조적 대응 노력에 더하여, Age-Tech 시장 육성 등 새로운 성장기회도 적극 만들어 가겠습니다.

-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「저출생 대책」에 대한 보완 과제'와, 'Age-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'을 중심으로 논의하겠습니다.

[저출생대책(6.19)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보완과제]

- 먼저,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, 임신부,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
-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외벌이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%에서 130%로, 맞벌이가구는 120%에서 200%로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
- 출국시에 인천공항 뿐만 아니라 제주·김해·김포공항에서도 다자녀 가구가 우선 검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.
- 또한, 눈치 보지 않고 출산·육아하는 사회로 바뀌어나가기 위해, 육아휴직 등 결혼·출산·육아에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용어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.

[초고령화 대응방향(II): Age-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]

- 정부는 전통실버산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Age-Tech 중에서
①돌봄로봇, ②웨어러블 및 디지털의료기기, ③노인성질환 치료,
④항노화 및 재생의료, ⑤스마트 홈 케어를
5대 중점 분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.

- 이를 위해, AI·바이오·로보틱스 등을 기반으로 하는
3,000억원 규모의 범부처 Age-Tech
플래그십 프로젝트*를 기획하는 등
기술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.

* (사업 목표) 국내 고령친화 산업 제품·서비스의 Age-Tech化
(전문/수행기관) 한국보건산업진흥원 / 기업, 대학, 병원 등 컨소시엄

- 첨단재생의료 치료범위를 중대·난치 질환에서
치매·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환으로 확대함으로써
국내 재생의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.
- 나아가, 5대 분야 Age-Tech 제품의 초기수요 창출을 위해
장기요양보험에서 복지용구 급여 지원을 확대하고,
Age-Tech 제품을 현장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
스마트 경로당*을 2,000개소 이상 추가하겠습니다.

* 경로당에 비대면 화상플랫폼, 헬스케어 기기 등 ICT 인프라를 구축하여
교육·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('24년 말 기준 2,388개소 구축)